

부적절 접어 조합이 되는 이유에 대한 효과적 설명방안*

심상완
단국대학교

심상완(2022), 부적절 접어 조합이 되는 이유에 대한 효과적 설명방안,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3(1), 1-24.

초록 여격 접어가 대격 접어에 선행함에도 불구하고 **le*_{DAT}-*me*_{ACC}, **te*_{DAT}-*nos*_{ACC}처럼 허용되지 않는 접어 조합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학습자가 많아 오류를 범하기 쉽다. 본고의 목표는 이런 조합들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접어 문치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하기에 앞서 '배타적 대격 접어 포함 요건'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부적절한 접어 조합으로 인해 비문이 될 상황에 놓였을 때 두 가지 교정 전략((i) 배타적 대격 접어에 의한 대체, (ii) 여격 접어의 비음성화(非音聲化))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셋째, (a) '너를 사장님께 소개해줄게'와 (b) '사장님을 너에게 소개해줄게'는 의미가 다르지만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를 이용하여 둘을 스페인어로 번역해보면 (a)와 (b)가 외형상 동일한 문장으로 번역된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 소개한 두 번째 교정 전략을 활용하면 두 문장의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번역되는 이유를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핵심어 접어 조합, 배타적 대격, 교정 전략, 대체, 접어 비음성화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분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고는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2021학년도 연구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I. 서론

스페인어에서는 여격 접어(dative clitic)(=간접목적대명사)와 대격 접어(accusative clitic)(=직접목적대명사)가 동시에 출현하여 접어 뭉치(clitic cluster)를 형성할 때가 많다. 이때 여격 접어는 대격 접어에 선행한다(이하, ‘여격 > 대격 요건’). 학습자 대부분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문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격 접어 *le*와 대격 접어 *nos*를 조합할 경우 비문이 된다(**Ana le nos recomendó*). 이러한 접어 조합 제약을 잘 모르는 학습자들은 종종 작문/번역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접어 조합이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문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를 소개하고 교육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짚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접어 조합 제약에 대한 기존 분석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접어 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한 다음 부적절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교정 전략을(repair strategy) 소개한다. V장에서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와 같은 자동 번역기가 내놓는 번역 결과물이 학습자에게 유발할 수 있는 혼란의 사례를 소개하고 본고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교정 전략은 번역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러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II. 학습자 오류 소개

1. 부적절한 접어 조합 유형 1: **le*-{*me/te/nos/os*}

학습자들은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 여격 접어와 대격 접어가 동시에 출현할 때 여격 접어가 대격 접어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 (1) Juan me prestó su bicicleta.
→ Juan me la prestó. / *Juan la me prestó.

그런데 다수의 학습자가 미처 모르고 있는 점은 두 접어의 조합이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항상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수님은 그에게 우리를 추천하셨다’와 같은 문장에서 ‘그’는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을 추천받는 사람이므로 간접목적어고, ‘우리’는 추천되는 사람(피추천자)이므로 직접목적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간접목적어 ‘그’에 해당하는 단어로 여격 접어 *le*를, 직접목적어 ‘우리’에 해당하는 단어로 대격 접어 *nos*를 선택하여 ‘여격 > 대격 요건’에 따라 (2a)처럼 번역하기 쉽다.

- (2) 교수님은 그에게 우리를 추천하셨다.
a. *El profesor le nos recomendó.
b. El profesor nos recomendó a él.

그러나 올바른 번역은 (2a)가 아니라 (2b)다. (2a)에서 여격 *le*는 대격 *nos*에 선행하므로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문장이다. 따라서 (2a)의 비문법성은 여격 접어가 대격 접어에 선행한다고 해서 항상 문법적인 문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학습자들이 ‘여격 > 대격 요건’을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한 나머지 이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정문이 된다고 생각하여 (2a)와 같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은정(2019)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접어 조합 실험은 실제로 많은 학습자가 이와 같은 오류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실험은 32명의 학습자들에게 6개의 예문을 제시하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습자 조사 설문지〉(유은정 2019, 262)

※ 다음 문장의 의미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a) 그들이 그에게 나를 소개했다. _____ presentaron _____
- (b) 그들이 너를 그녀에게 보냈다. _____ enviaron _____
- (c) 그들이 나를 너에게 추천했다. _____ recomendaron _____
- (d) 그들이 나에게 너를 소개했다. _____ presentaron _____
- (e) 그들이 나를 너희들에게 건네주었다. _____ entregaron _____
- (f) 그들이 너에게 우리들을 보냈다. _____ enviaron _____

실험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예문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완성한 2학년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오답률 100%) 3,4학년 학생 중에는 일부 예문을 바르게 완성한 사람은 있어도 모든 예문을 정확하게 완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빈도가 가장 높은 오답 유형은 여격 접어와 대격 접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한 경우(*le me + V)로서 2학년은 69%~92%, 3,4학년은 42%~79%를 차지하였다.

한편, 대학별로 학습자들의 학력 수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오류가 특정 대학 학습자들에게 국한된 문제인지 아니면 학습자들의 학력 수준 차이와는 관계없이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전반적으로 범하는 오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재직 중인 대학의 스페인어 전공 학생 91명(1학년 기초스페인어 수강생 51명, 2학년 중급작문 수강생 40명)을 대상으로 시험 형식을 빌어 유은정(2019)과 유사한 실험을 해 보았다. 1학년에게는 ‘후안은 그에게 나를 소개해주었다’를, 2학년에게는 ‘내가 그분에게 너를 추천할게’를 작문해 보도록 하였다. 동사를 모를 것에 대비하여 presentar와 recomendar는 미리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1학년 51명 중 단 4명만이 정답인 ‘Juan me presentó a él’을 적었고 나머지 47명은 오답(33명) 또는 답을 적지 못했다(14명)(오답률 92%). 그리고 오답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Juan le me presentó’였다.

오답 유형	미응답(14)을 제외한 오답(33)
le me presentó	20
me lo presentó	8
se me presentó	3
se lo presentó	1
Juan le presentó a mí	1

한편, 2학년의 경우 40명 중 8명이 정답인 ‘Te recomendaré a él’을 적었고 나머지 32명은 오답(19명)을 적거나 답을 적지 못했다(13명)(오답률 80%). 다만, 1학년과 달리 2학년의 경우는 가장 많은 오답이 *Le te recomendaré’가 아니라 ‘#Te lo recomendaré’¹⁾였는데 이는 1학년에 비해 2학년 학생들이 교재나 수업을 통해 {me/te/se/nos/os}-lo 유형의 접어 조합을 더 많이 접해본 까닭에 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오답 유형	미응답(13)을 제외한 오답(19)
le te recomendaré	3
te lo recomendaré	9
te le recomendaré	1
기타	6

어쨌든 1,2학년을 합쳐 ‘le-{me/te} + V’ 유형이 가장 흔한 오답이었다는 사실은 유은정(2019)의 실험 결과와 비슷하다. 따라서 두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접어 조합 오류는 특정 대학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 학습자 전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초급, 중급 교재들은 ‘여격 > 대격 요건’만 언급할 뿐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접어 뭉치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접어 조합과 관련한 학습자들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여격 > 대

1) 이 문장은 문법적이지만 ‘너에게 그를 추천할게’의 의미이므로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격 요건' 충족은 접어 문치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점을 알려주었을 때 학습자 중에는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 조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
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에게 {나를/너를/우리를/너희를} 추천
하였다'와 같은 문장을 스페인어로 적을 때 간접목적어 '그'에 해당하는 표현으
로 여격 접어 *le*가 아닌 강대명사(strong pronoun) *a él*을 사용하여 번역해야 하
는(*El profesor le me presentó vs. El profesor me presentó a él) 이유가 궁금한
학습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궁금증들을 풀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설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부적절한 접어 조합 유형 2: *{me/te/nos/os}-le

직접목적어 기능을 수행하는 남성 단수 명사를 대명사로 바꿀 때 사용하는
접어는 *lo*다(Vendí el coche → Lo vendí, He visto a Juan → Lo he visto). 다만,
RAE 온라인 사전(<https://dle.rae.es/le?m=form>), RAE-ASALE(2010, 16.5.1b),
Alarcos Llorach(1994, 202) 등에 따르면 직접목적어 기능을 수행하는 남성 단
수 명사가 [+human]일 경우에는 *le*도 대격 접어로 사용될 수 있다(*leísmo*).

3ra persona complemento directo masculino: lo (también le cuando el
referente es un hombre.

[https://www.rae.es/consultas/uso-de-los-pronombres-los-las-les-leismo-
laismo-loismo](https://www.rae.es/consultas/uso-de-los-pronombres-los-las-les-leismo-laismo-loismo)

따라서 아래에서 보듯이 직접목적어 *a Pedro*에 상응하는 대격 접어로 *lo*와
le 둘 다 가능하다.

(3) Juan vio a Pedro. → Juan {*lo* / *le*} vio.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여격 접어와 대격 접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에
는 *le*를 대격 접어로 사용할 수 없다.

(4) 엘레나는 나에게 그를 소개하였다.

a. Elena me lo presentó.

b. *Elena me le presentó.

직접목적어 기능을 수행하는 남성 단수 명사가 [+human]일 경우에 le를 대격 접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습자들은 (4b)가 틀린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II.1장에서 소개한 *le- $\{me/te/nos/os\}$ 조합이 부적절한 이유뿐만 아니라 (4b)의 *me-le를 비롯한 * $\{te/nos/os\}$ -le와 같은 조합이 부적절한 이유까지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 접어 조합 제약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Perlmutter(1971)가 접어 조합 제약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이래로 여러 연구가 이어졌다(cf. Bonet 1991, 1994; Ormazabal & Romero 2007, 2010; Colmina 2014 etc.) 먼저 Perlmutter(1971), Bonet(1991, 1994)의 주장 및 문제점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Ormazabal & Romero(2007, 2010)의 분석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부적절한 접어 조합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접어 조합 제약 문제를 설명하는 유은정(2019)의 제안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Perlmutter(1971), Bonet(1991, 1994)

Perlmutter(1971)는 접어 조합 제약을 설명하기 위해 일종의 표면 제약(surface constraint)이라 할 수 있는 ‘접어 배열 순서 형판(template for Spanish)’을 제시하는데 핵심 내용은 접어가 연달아 출현할 때 아래의 배열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²⁾

2) Perlmutter의 접어 배열 순서 형판에서는 인칭만 고려되고 수(단수, 복수)는 고려되지 않으며 대격, 여격 여부도 중요치 않다.

(5) 스페인어 접어 배열 순서 형판(template for Spanish)

SE - II - I - III (II = 2인칭, I = 1인칭, III = 3인칭)

그에 따르면 *me-te, *le-me, *lo-te 등과 같은 조합들이 부적절한 이유는 모두 접어 배열 순서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가령, *me-te의 경우 1인칭 접어가 2인칭 접어에 선행하므로 접어 배열 순서를 위반하여 부적절한 조합으로 판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가 보기에 Perlmutter의 접어 배열 순서 형판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가령, *me-le, *os-me와 같은 조합은 접어 배열 순서를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한편, Bonet(1991, 1994)은 ‘인칭-격 제약(Person-Case Constraint)’을 통해 부적절 조합의 이유를 설명한다.

(6) If DAT_{PERS} then ACC-3rd.

이 제약의 핵심은 접어 뭉치 내에 여격 접어가 출현하면 대격 접어는 반드시 3인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me-te, *te-me, *me-nos, *nos-me, *me-os, *os-me 같은 조합들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대격 접어가 3인칭이 아니어서 (6)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가 보기에 이 제약은 *me-le 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접목적어 기능을 하는 남성 단수 명사가 [+human]일 경우에는 le도 대격 접어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me-le 조합이 (6)의 제약을 위반한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Ormazabal & Romero(2007, 2010)

접어 조약 제약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Ormazabal & Romero(2007, 2010)는 접어를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분류한다. 접어를 대격과 여격으로 나누는 기존 분류와 달리 그들은 접어를 3인칭 대격과 나머지(=1,2인칭 대격 및 여격 전체)로 양분한다. 대격 접어라도 3인칭과 1,2인칭을 서로 다른 성격으로 본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3인칭 대격 접어는 정관사(=한

정사)이고³⁾ 나머지 접어들은 굴절 핵(inflexional head)에서 기저-생성되는 일치 표시자(agreement marker)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굴절 핵 내부에 일치 표시자를 위한 자리는 딱 하나뿐이라고 가정한다([_{INFL} [] V]). 그런 다음, 접어 조합 제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격 접어 전체와 1인칭 대격 접어는 모두 일치 표시자이므로 *le-me, *le-te처럼 여격 접어와 1인칭/2인칭 대격 접어 간의 조합, 그리고 *me-te, *te-me처럼 여격 접어와 1인칭/2인칭 대격 접어 간의 조합은 하나밖에 없는 일치 표시자를 위한 자리에 두 개의 일치 표시자가 출현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me-lo, me-la, nos-lo와 같은 조합의 경우는 3인칭 대격 접어가 정관사이기 때문에 일치 표시자인 여격 접어와 조합하더라도 굴절 핵 내에 하나밖에 없는 일치 표시자 자리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적절한 조합이 된다는 것이다.⁴⁾

한편, *me-le를 비롯한 *te-le, *nos-le, *os-le와 같은 조합이 부적절한 것도 위와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표준 스페인어와 달리 스페인 북부 leísta 지역에서는 직접목적어의 유생성(animacy) 유무에 따라 대격 접어의 형태도 달라져서 직접목적어가 [-animate]면 lo를, [+animate]면 le를 사용하는데 Ormazabal & Romero는 대격 접어 le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치 표시자인 여격 접어 le를 닮았다는 점에⁵⁾ 주목하여 대격 접어 le도 일치 표시자로 본다. 따라서

3) 3인칭 대격 접어를 정관사로 보는 근거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는데 그 중 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첫째, 남성 3인칭 단수만 빼면 3인칭 대격 접어와 정관사의 형태가 동일하며(3인칭 대격 접어: lo/la/los/las vs. 정관사: el/la/los/las) 둘째, 둘 다 라틴어 지시사 illum/illam에서 비롯된 점에서 어원이 같다는 것이다.

4) Ormazabal & Romero는 3인칭 대격 접어가 정관사로서 명사구 내부에서 생성된 다음 동사로 포함(incorporation)된다고 본다(cf. Uriagereka 1988, 1995, Torrego 1988, Bleam 2000, Boeckx 2003).

(i) V [_{DP}[D clitic] *pro*] ⇒ [_D clitic]_i-V [_{DP} *i* *pro*]

5) 대격 접어 le가 여격 접어 le와 유사하다는 근거로 다음의 사실을 제시한다. 첫째, 여격 접어 le는 남성, 여성에 따른 형태 변화를 겪지 않는데 대격 접어 le도 성에 따른 형태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여격 접어 le가 접어 중복(clitic doubling: le_i ... a NP_i)이 가능하듯이 대격 접어 le도 접어 중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i) Pedro no le; vio a nadic.
(Ormazabal & Romero 2010, 20)

*me-le를 비롯한 *te-le, *nos-le, *os-le와 같은 조합 역시 굴절 핵 내에 하나밖에 없는 일치 표시자를 위한 자리를 놓고 두 개의 일치 표시자가 서로 자리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초래하여 부적절 조합으로 판정받는다고 설명한다.

Ormazabal & Romero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적절한 접어 조합이 되느냐 부적절한 접어 조합이 되느냐는 굴절 핵 내부에 하나밖에 없는 일치 표시자를 위한 자리([INFL [] V])에 한 개의 일치 표시자만 출현하느냐([INFL me] lo V)) 아니면 두 개의 일치 표시자가 출현하느냐(*[INFL me le] V, *[INFL le me] V)의 차이로 귀결된다.

연구자가 보기에 Ormazabal & Romero의 분석은 부적절한 접어 조합의 이유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이들의 분석을 학부 과정의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학부생들이 수업이나 교재를 통해 알고 있는 기존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접어 분류 체계(대격 vs. 여격)와 전혀 다른 분류 체계(3인칭 대격 vs. 1,2인칭 대격/여격 전체)를 받아들여야 하고, lo는 목적대명사가 아니라 정관사이며, 여격 접어 전체와 1,2인칭 대격 접어는 일치 표시자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3. 유은정(2019)

한편, 유은정(2019, 271, 274-275)은 유생성(animacy) 자질에 입각하여 접어 조합 제약을 설명하는 교육적 방안을 제안한다. 3인칭 대격 접어 lo(s), la(s)는 사물, 사람 모두를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서 [-animate] 자질을 지니며, 그 외 1,2인칭 대격 접어와 여격 접어 전체는 [+animate] 자질을 지닌다고 본 다음, 적절한 접어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animate, -animate] 자질들의 조합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leísta 지역에서 직접목적어가 [+animate]일 경우에는 le가 대격 접어로 사용된다는 사실(cf. Ormazabal & Romero 2007)에 입각하여 여격 le뿐만 아니라 대격 le도 [+animate] 자질을 지니며, 따라서 *me-le 조합이

부적절한 이유는 [+animate, +animate] 자질의 조합이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animate] 자질을 지닌 접어 간의 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학습자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다면 유은정의 설명방안은 교육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부적절 조합 이유에 대한 새로운 설명방안

1. 배타적 대격 접어 포함 요건

이번 장에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부적절 접어 조합의 이유를 교육적 관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두 접어가 조합하여 접어 뭉치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하기에 앞서 아래의 요건을 우선 충족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7) 배타적 대격 접어 포함 요건

어휘부(lexicon)로부터 선택된 두 접어가 접어 뭉치를 형성할 수 있으면 둘 중 하나는 ‘배타적’ 대격이어야 한다.

배타적 대격 접어란 오직 대격으로만 사용되고 여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접어를 가리킨다. Devuélvemelo, Te la regalaré, Ya te los he enviado, Mamá me los entregó, Te las doy처럼 여격 접어와 대격 접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구문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lo, la, los, las 가운데 하나가 대격 접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만이 배타적 대격 접어이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배타적 대격 접어 포함 요건’이 ‘여격 > 대격 요건’보다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휘부에서 선택한 두 접어를 적절하게 조합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느 것이 여격 접어이고 어느 것이 대격 접어인지 형태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선택된 두 접어에 대해 ‘여격 > 대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령, 어휘부로부터 접어 A와 접어 B가 일단 선택되게 되면⁶⁾ 둘은 ‘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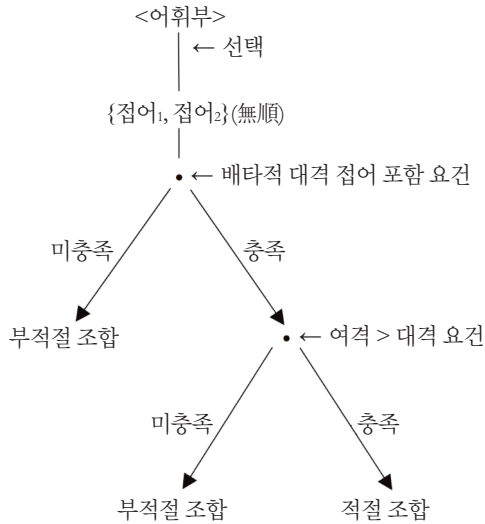
저장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안에서 둘은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있다고 보자. 따라서 이곳에서 둘을 조합하여 접어 뭉치를 형성하려면 A와 B 중 어느 것이 여격이고 어느 것이 대격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형태를 보아서는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이 여격 접어고 어느 것이 대격 접어인지 알 수 없다면 둘을 A > B 순서로 조합해야 할지 아니면 B > A 순서로 조합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선택된 두 접어 A와 B 중에서 하나가 오직 대격으로만 사용되는 배타적 대격 접어라고 보자. 그런 경우에는 A와 B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게 된다. 가령, B가 배타적 대격 접어일 경우 A > B 순서로 배열하면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하여 적절한 조합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배타적 대격 접어 포함 요건'이 '여격 > 대격 요건'에 앞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접어 뭉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대격 접어 포함 요건'을 '여격 > 대격 요건'보다 우선해서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le-{me/te/nos/os} 조합, *{me/te/nos/os}-le 조합, 그리고 *me-te, *te-me, *te-nos, *nos-te, *te-os, *os-te와 같은 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지닌다. 가령, 어휘부에서 le와 me를 각각 선택했다고 보자. 그런데 le(=[+human] le)와 me는 여격으로도 쓸 수 있고 대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둘 다 배타적 대격 접어가 아니다. 따라서 둘을 le > me 순서로 조합하든, me > le 순서로 조합하든 어차피 둘의 조합은 '배타적 대격 접어 포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절한 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여격 > 대격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부적절한 조합으로 판정되며 이로 인해 이런 조합을 포함하는 *Ana le me recomendó, Ana me le recomendó와 같은 문장도 비문이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인 두 접어 간의 순서(여격 > 대격)가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은 모두 우선 충족 대상인 '배타적 대격 접어 포함 요건'을 충족하지

6) 어휘부로부터 두 접어가 선택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못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두 접어의 조합이 부적절 조합 또는 적절한 조합으로 판정되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배타적 대격 접어 포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곧바로 부적절 조합으로 판정되는 것은 *me-le, *le-me, *le-te, *te-nos와 같은 조합이고, ‘배타적 대격 접어 포함 요건’은 충족하지만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절 조합이 되는 것은 *lo-me, *los-nos와 같은 조합이며, 두 요건을 순서대로 충족하여 적절한 조합으로 판정되는 조합들은 me-lo, te-los, nos-la 등이다.

2. 부적절 조합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교정 전략

이번에는 어떤 문장이 부적절한 조합을 포함함으로써 인하여 비문이 될 상황에 놓였을 경우, 두 가지 ‘교정 전략(repair strategy)’ 사용을 통해 비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는 ‘배타적 대격 접어에 의한 대체(substitution)’고 두 번째는 ‘여격 접어의 비음성화(非音聲化)’다.

첫 번째 전략은 부적절 조합의 원인이 되는 대격 접어를 다른 배타적 대격 접어로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e-le 조합은 배타적 대격 접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적절한 조합이지만 “다행스럽게도” le_{ACC}는 배타적 대격 접어인 lo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me-le → me-lo). 따라서 그렇게 하면 부적절성의 원인이 제거되어 비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me-le 조합 이외에 *{te/nos/os}-le와 같은 부적절 조합도 이러한 대체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교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배타적 대격 접어에 의한 대체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가령, *le-me 조합 역시 배타적 대격 접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적절한 조합이다. 그런데 이 조합의 경우 me_{ACC}를 대체할만한 다른 배타적 대격 접어가 없다. 즉, me와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오직 대격으로만 사용되는 접어는 없다. 따라서 비문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다른 교정 전략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여격 접어를 비음성화(非音聲化)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서 여격 접어 중복(dative clitic doubling: le_i ... a NP_i)은 흔한 현상이다.

(8) Juan le_i regaló un collar {a su novia_i/ a ella_i}.

그런데 동사가 decir, pedir 유형이거나 혹은 dar, regalar 같은 수여동사이면 중복 명사구(doubled NP)가 고유명사, 보통명사일 경우에는 여격 접어의 동반 출현 없이 중복 명사구만 단독 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 (9) a. (Le_i) dije a Pedro_i que no llegara tarde.
 b. (Le_i) entregó su espada al general_i.
 c. (Le_i) ofreció un puesto a mi sobrino_i.
 d. Samuel (le_i) pidió un préstamo al banco_i.
 ((a) Fernández-Soriano 1999, 1250;
 (b-d) Gutiérrez Ordóñez 1999, 1863, 1976)

반면, 중복 명사구가 a él, a ella와 같은 강대명사(strong pronoun)일 경우에

는 접어의 동반 출현이 요구된다.

- (10) a. *(Le_i) entregué la carta a él.
 b. *(Le_i) di el regalo a él.
 (Jaeggli 1982, 14; Fernández-Soriano 1999, 1248)

다만, (11b)처럼 접어의 동반 출현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 (11) José가 그에게 나를 추천했다.(=José가 나를 그에게 추천했다.)
 a. *José **le me** recomendó.
 b. José **me** recomendó **a él**.

(11)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a)가 아니라 (b)다. 그런데 (b)를 보면 여격 접어 *le*의 출현 없이 강대명사 *a él*만 출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b)는 중복 명사구가 강대명사일 경우 여격 접어의 동반 출현을 요구하는 “원칙”을 위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올바른 번역문인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는 원칙적으로는 강대명사만의 단독출현은 안 되지만 아래 (12(i))에서 보듯이 부적절한 접어 조합(**le-me*)으로 인해 비문이 될 처지에 놓인 경우에는 최후수단(*last resort*)으로 강대명사만 단독 출현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즉, **le-me* 조합은 부적절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를 음성화하지 않지 않는 대신에 *le*와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 중복 명사구 *a él*을 음성화함으로써 부적절 조합 형성을 피하면서도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중복 명사구 *a él*과 여격 접어 *le*는 동일한 대상(*referent*)을 공유하므로 중복 명사구 *a él*만을 사용하더라도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래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교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le*~~는 음성화되지 않음을 나타낸다).⁷⁾

7) 생성통사론적 관점에서 Bošković & Nunes(2007)는 어떤 요소의 이동으로 연쇄가 형성될 경우, 대개는 상위복사(*higher copy*)가 음성화되지만 상위복사의 음성화로 인해 어떤 제약이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상

- (12) (i) José le_i me presentó a él_i (기본구조: 부적절 접어 조합)
 (ii) José le_i me presentó a él_i (교정: le 비음성화)
 (iii) José me presentó a él_i (표면구조)

이 교정 전략을 이해하는 학습자라면 ‘Pedro가 그에게 나를 소개했다’에 해당하는 문장이 *Pedro le me presentó가 아니라 Pedro me presentó a él이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지금까지의 두 가지 교정 전략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⁹⁾

교정 전	부적절성 이유	교정 전략	교정 후
*me le	배타적 대격 접어 미포함	배타적 대격 접어에 의한 대체 (*me <u>le</u> → me <u>lo</u>)	me lo
le me		여격 접어의 비음성화 (<u>le</u> _i me...a <u>él</u> _i → <u>le</u> _i me ... a <u>él</u> _i)	me ... a <u>él</u>

V. 자동 번역기 번역에 대해 학습자가 겪는 혼란과 해결안

오늘날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 덕분에 자동번역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여 원하는 문장을 빠르고 쉽게 번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편리함과 신속성 때문

위복사 대신 하위복사(lower copy)가 음성화된다고 주장한다. 비록 여격 접어 중복은 이동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상위의 여격 접어 대신 하위의 중복 명사구를 음성화한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제시하는 교정 전략은 넓은 의미에서 Bošković & Nunes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8) (i)에서 보듯이 여격-대격 접어가 동시에 출현할 때 여격 접어의 중복 명사구(a mí)도 함께 출현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를 근거로 여격-대격 접어가 조합될 때 기본구조에 여격 접어의 중복 명사구가 출현한다고 보도록 하겠다.

(i) Me lo dijeron a mí. (RAE-ASALE 2010, 35.2.1a)

- 9) *le-me 조합의 부적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격 접어를 비음성화하는 대신 대격 접어를 비음성화하는 전략(le me_i ... a mí_i → me_i ... a mí_i)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한다. 여격 접어 중복과 달리 대격 접어 중복은 중복 요소가 강대명사(strong pronoun)인 경우만 허용된다는(Lo_i vi a él_i vs. *Lo_i vi a Pedro_i) 점에서 대격 접어 중복은 여격 접어 중복보다 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스페인어 화자들은 부적절 접어 조합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허용 가능성이 낮은 대격 접어 중복보다는 언제든지 가능한 여격 접어 중복을 우선적 교정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에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간단한 문장 번역에 자동 번역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오류나 한계가 많아서 신뢰할만한 번역 수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듯이 자동 번역기가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는 날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번 장에서는 학습자들이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와 같은 자동 번역기를 이용하여 스페인어로 번역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작문/번역한 것을 자동 번역기를 통해 점검해보고자 할 때 겪을 수 있는 혼란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한 다음, IV장에서 소개한 두 번째 교정 전략 ‘여격 접어의 비음 성화’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두 개의 한국어 문장을 자동 번역기를 이용하여 스페인어로 옮겼을 때 외형상 동일한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예를 들어 (a) ‘너를 사장님께 소개해줄게’와 (b) ‘사장님을 너에게 소개해줄게’를 비교해 보자. (a)에서 직접목적어는 ‘너’고 간접목적어는 ‘사장님’이다. 반면에 (b)에서는 ‘사장님’이 직접목적어고 ‘너’는 간접목적어다. 따라서 두 문장은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 의미가 서로 다른 만큼 이들 문장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도 서로 다르다. 즉, (a)에 상응하는 영어 문장은 I’ll introduce you to the boss이고 (b)에 상응하는 영어 문장은 I’ll introduce the boss to you다.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에서 이 두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보면 두 번역기 모두 (a)와 (b)를 정확하게 번역해낸다.

한편,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를 이용하여 (a)와 (b)를 스페인어로 번역해보면 아래에서 보듯이 (a)도 Te presentaré al jefe로 번역되고 (b)도 Te presentaré al jefe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글 번역기>

언어 감지	한국어	라틴어	영어	▼	↔	스페인어	영어	라틴어
너를 사장님께 소개해줄게					×	Te presentaré al jefe.		

언어 감지	한국어	라틴어	영어	▼	↔	스페인어	영어	라틴어
사장님을 너에게 소개해줄게					×	Te presentaré al jefe		

<파파고>

한국어 ▾	⇒	스페인어 ▾
너를 사장님께 소개해줄게	×	Te presentaré al jefe.
한국어 ▾	⇒	스페인어 ▾
사장님을 너에게 소개해줄게	×	Te presentaré al jefe.

이러한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지만¹⁰⁾ 학습자들은 (a)와 (b)의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문장으로 번역되는지 의아해하거나 혹은 아직 완전히 신뢰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동 번역기가 오역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은 자동 번역기가 번역 결과만 제시할 뿐 번역 과정은 보여주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동번역의 수준이 아무리 향상되더라도 번역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IV장에서 소개한 ‘여격 접어의 비음성화’ 교정 전략을 활용하면 자동 번역기가 보여주지 못하는 번역 과정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a)와 (b)가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동일한 문장으로 번역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10) 다만, (a)에서 ‘사장님’을 ‘그’로 바꾸었을 때는 두 번역기의 번역 정확도는 달랐다. ‘너를 그에게 소개해줄게’의 올바른 번역은 Te presentaré a él인데 파파고는 정확히 번역하였지만, 구글 번역기는 Te lo presentaré(=너에게 그를 소개해주겠다)로 오역하였다. 둘 다 인공지능 기반 기계 번역기술(neural machine translation)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원리가 같지만 입력된 데이터양에 있어 구글 번역기가 파파고보다 월등히 앞서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결과는 의외다. 물론 다른 문장의 번역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향후 번역 정확도와 관련한 둘의 차이를 비교하여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파파고>

한국어 ▾	⇒	스페인어 ▾
너를 그에게 소개해줄게	×	Te presentaré a él.

<구글 번역기>

언어 감지 한국어 영어 독일어 ▼ ↔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너를 그에게 소개해줄게 × te lo presentare

(a) ‘너를 사장님께 소개해줄게’에서 소개를 받는 사람(간접목적어)은 ‘사장님’이므로 Te presentaré al jefe에서 al jefe는 간접목적어다. 따라서 al jefe와 동일한 지시를 지니는 여격 접어 le를 포함하는 기본구조는 Le_i te presentaré al jefe_i가 된다. 그런데 이 구조는 부적절한 접어 조합 *le-te를 포함하므로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여격 접어 le를 음성화하지 않고 대신 중복 명사구 al jefe를 음성화하면 Te presentaré al jefe가 도출되게 되는 것이다(~~le~~_i는 음성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13) (a) ‘너를 사장님께 소개해줄게’ 의미의 Te presentaré al jefe
도출 과정
(i) Le_i te presentaré al jefe_i (기본구조: 부적절 접어조합)
(ii) ~~le~~_i te presentaré al jefe_i (le 비음성화)
(iii) Te presentaré al jefe. (표면구조)

한편, (b) ‘사장님을 너에게 소개해줄게’의 경우는 소개를 받는 사람(간접목적어)이 ‘너’이므로 Te presentaré al jefe에서 te는 여격 접어다. 따라서 여격 접어 te의 중복 명사구 a ti를 포함하는 기본구조는 Te_i presentaré al jefe a ti_i가 된다. 이 구조에서는 동사 앞에 여격 접어 te만 출현하므로 부적절 접어 조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te는 그대로 음성화되고 강조나 대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음성화할 필요가 없는 중복 명사구 a ti는 비음성 처리함으로써 Te presentaré al jefe가 도출되게 되는 것이다(~~a ti~~_i는 음성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14) (b) ‘사장님을 너에게 소개해줄게’ 의미의 Te presentaré al jefe
도출 과정
(i) Te_i presentaré al jefe a ti_i (기본구조)
(ii) Te_i presentaré al jefe ~~a ti~~_i (a ti의 비음성화)
(iii) Te presentaré al jefe. (표면구조)

정리하자면, 자동 번역기를 이용하여 (a) ‘너를 사장님께 소개해줄게’와 (b) ‘사장님을 너에게 소개해줄게’를 각각 스페인어로 번역했을 때 (a)도 Te presentaré al jefe로, (b)도 Te presentaré al jefe로 번역되는 것을 보고 학습자들

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IV장에서 소개한 두 번째 교정 전략 ‘여격 접어의 비음성화’를 활용하면 (a)에 해당하는 Te presentaré al jefe와 (b)에 해당하는 Te presentaré al jefe가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학습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론

본고에서는 접어 조합 제약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갖는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대다수 학습자는 여격 접어와 대격 접어가 동시에 출현할 때 전자가 후자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준수하더라도 접어 조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학습자는 많지 않다. 유은정(2019)의 실험을 따라서 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의 학습자들을 상대로 시행한 실험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접어 조합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접어 뭉치를 형성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며 어떤 조합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둘째, 두 접어의 조합이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접어 뭉치를 형성할 수 없는 이유를 교육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두 접어의 조합을 통해 접어 뭉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격 > 대격 요건’을 충족하기에 앞서 ‘배타적 대격 접어 요건’을 우선 충족해야 하며 접어 뭉치를 형성하지 못하는 조합들은 모두 이 ‘배타적 대격 접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접어 조합이 부적절 판정을 받아 비문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두 가지 교정 전략(repair strategy)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첫째는 ‘배타적 대격 접어에 의한 대체’로서 이 전략을 적용하면 *{me/te/nos/os}-le와 같은 부적절 조합을 교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me-le

→ me-lo). 둘째는 여격 접어 중복(dative clitic doubling)에서 여격 접어를 음성화하지 않는 대신 중복 명사구(doubled NP)를 음성화하는 전략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le- {me/te/nos/os}와 같은 부적절 조합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e, me V a él_i → ~~le~~, me V a él_i → me V a él).

넷째,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와 같은 자동 번역기가 내놓는 번역(한국어 → 스페인어 번역) 결과물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한 다음, 본고에서 제시한 두 가지 교정 전략 중 하나인 ‘여격 접어의 비음성화’를 활용하면 학습자가 번역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유은정(2019), 「스페인어 목적대명사 교육에 대한 제언」, 언어과학연구, Vol. 90, pp. 259-278.
- Alarcos Llorach, Emilio(1994),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 Boeckx, Cedric(2003), *Islands and Chains*, Amsterdam: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Bleam, Tonia M.(2000), “Leísta Spanish and the Syntax of Clitic Doubl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onet, Euràlia(1991), “Morphology After Syntax: Pronominal Clitics in Romance Languages”, Doctoral Dissertation, MIT.
- Bonet, Eulàlia(1994), “The Person-Case Constraint: A Morphological Approach”, *MIT Working Papers*, Vol. 22, pp. 33-52.
- Bošković, Željko & Jairo Nunes(2007) “The Copy Theory of Movement: A View from PF”, N. Corver & J. Nunes(ed.), *The copy theory of movement*, Amsterdam: John Benjamins, pp. 13-74.
- Colomina, M. Pilar(2014), “Variación en las combinaciones de pronombres. Un análisis contrastivo del español, el catalán y el aragonés”, Trabajo final

de grado.

- Fernández Soriano, Ordóñez(1999), “El pronombre personal. Formas y distribuciones. Pronombres átonos y tónicos.”, I. Bosque & V. Demonte (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 pp. 1209-1273. Madrid: Espasa-Calpe, S.A.
- Fernández-Ordóñez, Inés(1999), “Leísmo, Laísmo y Loísmo”, I. Bosque & V. Demonte(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 pp. 1317-1397, Madrid: Espasa-Calpe, S.A.
- Gutiérrez Ordóñez, Salvador(1999), “Los dativos”, I. Bosque & V. Demonte (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I, pp. 1855-1897, Madrid: Espasa-Calpe, S.A.
- Jægglí, Oswaldo(1982), *Topics in Romance Syntax*, Dordrecht: Foris.
- Ordóñez, Francisco(2012), “Clitics in Spanish”, J.I. Hualde, A. Olarrea & E. O’Rourke(ed.), *The Handbook of Hispanic Linguistics*, Chichester: Wiley-Blackwell, pp. 423-451.
- Ormazabal, Javier & Juan Romero(2007), “The Object Agreement Constraint”, *Natural Language & Linguist Theory*, Vol. 25, No. 2, pp. 315–347.
- Ormazabal, Javier & Juan Romero(2010), Object Clitics, Agreement, pre-publication version of *Probus*(2013), Vol. 25, No. 2, pp. 1-33.
- Perlmutter, David. 1971. *Deep and Surface Structure Constraints in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RAE-ASALE(2010),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Manual)*, Madrid: Espasa.
- Torrego, Esther(1988), “Pronouns and Determiners. A DP Analysis of Spanish Nominals”,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Uriagereka, Juan & Ángel J. Gallego(2017), “Condiciones de ensamble en las combinaciones de clíticos”, *Relaciones sintácticas*, UAB, pp. 663-680.
- Uriagereka, Juan(1988), “On Govern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Uriagereka, Juan(1995), “Aspects of the Syntax of Clitic Placement in Western Romance”, *Linguistic Inquiry*, Vol. 26, pp. 79-123.
- <https://www.rae.es/consultas/usos-de-los-pronombres-los-las-les-leismo-laismo>

loismo

<https://dle.rae.es/le?m=form>

심상완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pablo@dankook.ac.kr

논문투고일: 2022년 3월 1일

심사완료일: 2022년 4월 18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18일

An effective way to explain the reasons for inappropriate clitic combinations

Sang-Wan Shim

Dankook University

Shim, Sang-Wan(2022), An effective way to explain the reasons for inappropriate clitic combinations,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3(1), 1-24.

Abstract In Spanish, when two clitics are combined to form a clitic cluster, the dative clitic must precede the accusative one (DAT > ACC requirement). However, there are combinations that are disallowed despite the satisfaction of the requirement (e.g. *le-me, *te-nos). Therefore, the goal of the paper is to suggest an effective way to account for why they are not allowed. First, we argue that in order to form a clitic cluster, 'the exclusive accusative clitic inclusion requirement' must be satisfied before 'the DAT > ACC requirement'. Second, we show that Spanish allows to use two repair strategies to fix the problems caused by inappropriate clitic combinations. One is to solve the problem by substitution and the other is to correct the problem by not pronouncing the dative clitic. Third, (a) '너를 사장님께 소개해줄게'(=I'll introduce you to the boss) and (b) '사장님을 너에게 소개해줄게'(=I'll introduce the boss to you) have different meanings, but when translated into Spanish using Papago and Google translators, the two are translated the same way, which may cause confusion to learners. We suggest that explanation using the second repair strategy introduced in this paper can help them understand why the two sentences are translated the same despite the different meanings.

Key words clitic combinations, exclusive accusative clitic, repair strategy, substitution, non-pronunciation of the clitic